

2011.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레위기 · 민수기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2011.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레위기 · 민수기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4

2011
April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사도행전 13장	4 사도행전 14장	5 사도행전 15장	6 사도행전 16장
10 사도행전 20장	11 사도행전 21장	12 사도행전 22장	13 레위기 15장
17 레위기 19장	18 레위기 20장	19 레위기 21장	20 레위기 22장
24 레위기 26장	25 레위기 27장	26 민수기 1장	27 민수기 2장

May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사도행전 11장

2 사도행전 12장

교회 주요일정

4월 17일종려주일(가족연합예배)
장애인주일4월 18~22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22일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4월 24일부활주일(특별찬양예배)
제2차 학습세례식

7 사도행전 17장

8 사도행전 18장

9 사도행전 19장

나의 주요일정

14 레위기 16장

15 레위기 17장

16 레위기 18장

21 레위기 23장

22 레위기 24장

23 레위기 25장

28 민수기 3장

29 민수기 4장

30 민수기 5장

- 1 사순절기(3.9~4.23)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2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3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7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10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가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가치하며 천국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일시적인 병이나 마비가 되는 질환이 아닌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17~20).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롬 4:25).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십자가가 그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여 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11년 4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 경 봉 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정예배를 위한 기도문과 찬양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매일 성경독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사도행전 11장 · 찬송가 518장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초기의 모습으로 1~18절에는 고넬료의 개종 사건 이후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건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큰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종교적 선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의 강림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방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이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이 회개를 주셨습니다(18절). 우리는 이방인에게 회개하도록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21절).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외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한 선교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1)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헤롯의 교회 탄압

사도행전 12장 · 찬송가 210장

2

토요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시 헤롯의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헤롯의 교회 탄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보다 더욱더 노골적이며 가혹했습니다. '헤롯'은 예수의 탄생 때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마 2:16)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12사도 중 한 사람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은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하고 맙니다. 이 말씀에서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감당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따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7, 23절).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렘 33:3).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갑작스런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의 죽음은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헤롯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졌습니다(24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행 12:7)

기도제목

① 복음을 전할 때 오는 핍박을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습관처럼 주일 아침에 교회로 향하는 우리 식구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집을 나서는 식구들에게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었그제 금요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종려주일의 참뜻과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종려주일 전 구역예배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지만 묵묵히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준 어리석은 우리들을 생각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를 받고 보니 마음 한쪽이 찡해 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죽음을 맞이하려 오신 그분은 참으로 왕 중의 왕 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는 참으로 교만하고 뻔뻔한 죄인입니다.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건만 그분의 죽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향유를 준비하지도 못한 죄인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내며 저희 가족들에게 참으로 겸손한 한 주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삶 속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그저 지나가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아들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수정(집사, 4교구)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 · 찬송가 507장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울의 선교사역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과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는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

기도제목

① 우리의 편견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 찬송가 336장

4

월요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눈에 띄게 많이 맺혀졌지만 그와 동시에 박해가 극심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당함을 보여 줍니다. 1~7절은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지방관리들의 핍박으로 그곳을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로 사역지를 옮긴 일을, 8~18절은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곧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여 섬기려고 하는 소동을, 19~28절은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사역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성령의 주도로 복음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나간 것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입니다. 선교지 곳곳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사역에 부름받은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행 14:27)

기도제목

①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 · 찬송가 357장

율법적인 전통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1절)고 주장하면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간에 적지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음을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11절). 베드로는 고넬로 가정의 성령강림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회의는 베드로의 변론과 함께 야고보의 변론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변론과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의 무거운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였고,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5~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만장일치로 파송함을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리라”(행 15:11)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성령을 통한 선교

사도행전 16장 · 찬송가 185장

6

수요일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2차 선교사역(15:36~18:17)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어 그 방향을 바꾸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바울의 발길을 유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전도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누가는 성령(6절), 예수님의 영(7절), 하나님(10절) 등의 표현을 통하여 이방전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함으로 전도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런 전도자의 순종과 확신 있는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전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잠 16:9) 사실을 깨닫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과 방법을 주님께 의뢰해야 하며, 주님께서 뜻을 보이실 때는 힘써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7)

기도제목

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3.9~4.23)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 17장 · 찬송가 520장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암비폴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발칸 반도의 관문이요 요충지였던 이곳을 유럽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행해진 전도활동이 첫 부분에 있습니다(1~9절). 이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데살로니가를 빠져 나온 바울이 베뢰아에서 얻게 된 전도의 결과를 언급합니다(10~15절). 베뢰아인들은 신사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만나 많은 비난을 받지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23절) 하는 바울의 사역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의 복음증거를 방해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당시 헬라 세계의 사상적 중심지였던 아테네까지 전파되어 장차 전 세계로 확산될 기틀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기초는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지식과 변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행 17:18)

기도제목

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핍박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 찬송가 430장

8

금요일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의 미약한 선교결과에 낙담한 바울 일행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절망의 도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상업과 교통 및 정치의 중심지였던 부유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은 선교사역을 펼칩니다(1~17절). 실의에 빠져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9~10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늘 함께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격려를 힘입고 2차 선교여행의 절반에 해당되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늘 바울을 비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5~6절). 그렇지만 바울도 두려워했기에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고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18~23절). 바울의 선교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의 사역처럼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행 18:28)

기도제목

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사도행전 19장 · 찬송가 493장

3차 선교여행(18:23~20:38) 가운데 바울은 거의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1~7절). 그곳에서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8~20절).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의 아데미여신 숭배자들로부터 결정적인 방해를 받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21~41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불의한 자들의 강력한 방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와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될수록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훨씬 더 극렬하게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요 15:18~19).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더불어 악한 자들의 저항으로 인한 방해나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 방해하고 핍박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며 인내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자 아데미의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사도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에만 급급하여 대중심리를 자극시켜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작은 핍박에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생애 전부가 고난과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십자가로 인한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 19:20)

기도제목

① 우리의 입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전도회별로 교회 주변 전도를 나간다. 벌써 몇 년째 계속 되어지는 일이다. 처음에는 '잘됐다. 혼자서는 전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게 하시네'라는 생각에 여러 전도회원들과 함께 나갔다. 그러나 전도를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이었다. 집집마다 벨을 누르며 "충현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하면서 도망치듯 빠져 나오며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찼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그 귀한 보혈로 나를 사셨는데...'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전도회 식구들과 서로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점점 담대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젠 열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열매를 볼 수 없자 '이런 전도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지를 각 집의 현관에 꽂아놓은 뒤 남은 2장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택시에서 내리던 한 청년에게로 달려갔다. 그가 나에게 미소를 짓자 순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충현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집에 매주 전도지 꽂아놓고 가시는 분이시죠?" "예? 어디 사세요?" 청년이 가리키는 곳은 방금

〈주간총현〉을 쫓고 나온 곳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업무상 밤낮이 바뀌고 너무 바빠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고 했다. 끝까지 몇 호에 사는지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 가는 그에게 “〈주간총현〉지는 꼭 읽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가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다. 그 날 이후 열매를 보려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졌다. 매달 총력 교회주변 전도일이 되어 전도를 나가는 회원들의 수가 많은 적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현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내게 해 본다. “내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 뿌리는 자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 내게 전도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교회에서 정한 날의 행사였기에 행하던 것이었다. 뿌리는 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전도가 끝나면 하나의 숙제를 해결한 듯 묘한 시원함마저 느꼈다.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기는커녕 언젠가부터 내 속에 전도가 하나의 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월말고사 같은... 이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과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삶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이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하고 외치는 그 현장에서도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이혜경(집사, 3교구)



겸손과 눈물로 훈계하던

사도행전 20장 · 찬송가 212장

10

주일

우상 숭배자들의 소요사태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지방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1~6절), 드로아에서 유두고의 소생(7~12절), 그리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과(13~16절)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17~38절) 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앞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22~24절).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으며(19절), 눈물로 훈계하였으며(31절), 성령에 매였습니다(22절).

바울의 이런 자세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이러한 태도와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고후 5:14)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와 성령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겸손과 눈물의 섬김과 성령에 매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기도제목

① 겸손과 눈물의 섬김과 성령에 매인 삶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행전 21장 · 찬송가 356장

밀레도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오직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의연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 바치려는 굳은 결의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사랑하는 가족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여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19~20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합니다(27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고 그를 죽이려 하며(30~31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자고 외치는(36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13절) 결박 당할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에 매인 삶이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바울이 붙들었던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복음 전하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행 21:13)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가 쓰임받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요(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

사도행전 22장 · 찬송가 148장

12

화요일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폭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전후를 비교하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같은 증언은 바울 자신이 왜 유대 정통신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로 회심하였는지, 또 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힌 뒤에(1~4절), 어떻게 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5~16절),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증언합니다(17~21절).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분노와 증오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라”(22절) 하며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은 “보고 들은 것”(15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소명을 증언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14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지금 바울 앞에 선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 섬기노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택하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바울의 소명이 전적인 하나님의 불드심에 의한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증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보고 듣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행 22:15)

기도제목

①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갓가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과 그같은 부정에서 완치된 자가 치뤄야 할 정결의식(15장)을 말씀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유출병과 그 정결례(1~15절), 성 관계나 혹은 몽정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설정자가 치루어야 할 정결례(16~18절), 여성의 정기적 자궁 출혈인 월경에 따른 정결례(19~24절) 및 월경 외에 여성의 비정상적인 분비물로 인한 부정과 그 정결례(25~33절)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에게서 생겨나는 유출병과 그와 유사한 증상들은 모두 사람의 생식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써 창조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번성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증상은 성적인 방종으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것으로써, 생명의 질서와 거룩에 위배되는 일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듯이(7절), 우리는 우리가 죄에 물들 때마다 이를 속히 깨닫고 우리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눅 9:23).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이 아닌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레 15:12)

기도제목

①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람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영원한 규례

레위기 16장 · 찬송가 364장

14

목요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대속죄일 규례로써 대속죄일을 맞는 대제사장의 성결의식(1~5절)과 대제사장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6~22절)와 대속죄제사를 마친 이후의 정결의식(23~28절) 및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킬 것에 대한 명령(29~34절) 등을 말씀합니다. 속죄제사는 평상시에도 계속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죄악을 회개하게 하신 것은 비록 인간이 순간순간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속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죄는 피를 뿌려야 함을 명하며 속죄함으로 여호와 앞에 정결할 것과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인류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은혜로운 날입니다(히 7:26~28).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서 홀로 제사를 드린 아론을 통하여 홀로 서는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누가 대신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철저히 홀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겻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며 영원한 규례를 삼으시려 십자가 앞에 홀로 서신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레 16:30)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영원한 규례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가 있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 찬송가 254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희생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잡을 때의 유의사항과 이를 범하거나 헛된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의 엄한 징벌에 관하여(1~9절), 또한 생명 있는 고기를 피 채 먹지 말 것과 직접 잡지 않은 고기를 취식할 때의 유의사항(10~16절) 등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음식물에 관해서조차도 세밀한 규례를 마련하심으로써 인간의 불의한 욕심을 억제시키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사전에 방지하며 더욱이 생명의 존귀성을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거룩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불가능함을 보여 줍니다.

짐승의 피 흘림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11절)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속하기 위해 보혈을 흘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속죄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철저히 보혈에 적셔지는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가 속하였음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을 주옵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죄악으로 심히 오염된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성적 풍속도를 좇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1~5절)과 추악한 성 범죄인 근친상간의 절대금지(6~18절) 및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가증하고 추악한 이방 성 문화의 답습금지(19~23절)와 이 모든 금지된 명령을 어겼을 때 받을 처참한 형벌(24~30절)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원리에서 벗어나 이를 남용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며, 저급한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방임하면 불행과 파멸이 따릅니다. 더욱이 이 성의 타락은 단지 육체적 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까지 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30절)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함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2,4~5절)라는 말씀 속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육신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참된 성결과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레 18:3)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정결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사순절 절기 내에 포함된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주간이다. 이러한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지켜지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롬 6:3~5 ; 고전 11:23~26)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난주간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절기로 공개적으로 지켜진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신앙 자유령이 포고된 이후였다.

월요일~수요일 고난주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특별집회의 형식으로 모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철야집회를 갖는데, 이때 묵사는 감람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24:4 이하의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26:14~16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분의 말씀이 낭독되었는데 이때 회중은 큰 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세족 목요일(Maundy Thursday) 세족 목요일(Maundy Thursday)의 Maundy는 율법을 뜻하는 라틴어 Mandatum이며, 수난을 당하기 전 목요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하였다(요 13:34). 그리고 이 날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예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회개한 자와 화해함으로써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날 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며 다음 날 있게 될 십자가 지심을 대비했던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

성 금요일(Holy Friday) 성 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인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Good Friday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날은 역시 모든 성도들에게 슬픈 날임에 틀림 없다. 즉 성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했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에는 가장 엄격한 금식과 철야기도를 하였다.

성 토요일(Holy Saturday) 대안식일, 즉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셨던 동안인 성 토요일은 성 금요일보다도 더 엄숙한 날로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경건한 분위기 아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기념되었다. 따라서 이 날은 교회력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금식의 날이기도 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거룩할 것과 부모 공경과 우상 금지 및 희생 제사와 관련된 법규들(1~8절),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취할 이삭을 추수하지 말 것과, 흠치는 일과 거짓 언행을 하지 말 것, 험담을 금할 것과 타락하고 음란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 것, 이웃을 사랑할 것(9~37절) 등을 명령하십니다. 이 법규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2대 명령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헛된 신상숭배를 금해야 합니다(3~4절).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질과 명예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대상은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지만 이 규례는 반드시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성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란 뜻으로,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백성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기도제목

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영적장애에서 벗어나 온 마음으로 호산나 외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레위기 20장 · 찬송가 342장

18

월요일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다시 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을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런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1절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소개됩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인신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나라들은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둘째, 무당을 따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이는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음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규례를 지키어 행하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라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며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레 20:8)

기도제목

①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②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거룩을 얻으려면 할 제사장이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의 대처법(1~6절), 정결한 결혼과 제사장 자녀의 성적 순결 준수 명령(7~9절), 모든 백성에게 종교와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까다로운 준수 명령(10~15절),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신체조건(16~24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정결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입니다(1~9절). 제사장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합니다.

둘째는 무흠입니다(10~24절).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부패한 죄인인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고 거룩하신 분으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과 무흠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으며,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과 성결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임이니라”(레 21:15)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있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레위기 22장 · 찬송가 366장

20

수요일

하나님께 드려질 완전한 제물에 관한 규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흠 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도록 지시하셨습니다(17~21절). 제물로 합당치 않은 것(22~25절)에 대한 지시와 제물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무자비한 방법을 피하라고 명하십니다. 제물을 통한 백성들의 헌신이 온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 속에는 드리는 자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드리는 자의 성결과 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31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결코 이스라엘을 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당신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 결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22:31)

기도제목

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임을 깨닫는 영적지혜를 허락하소서. ②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절기로 매 주 어김없이 지켜야 할 안식일(1~3절)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유월절(4~14절), 오순절(15~22절), 초막절(33~44절) 및 신년절인 나팔절(23~25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대속죄일(26~32절) 등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중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지는 절기로서 일 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 받는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절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속죄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각종 절기와 성일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뜻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일에배 때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날들로 가득차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레 23:2)

기도제목

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여호와와 절기로 드러지게 하소서. ② 2011년, 종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중요)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레위기 24장 · 찬송가 510장

22

금요일

성막에 비치되는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1~9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과(10~16절) 살인죄 및 상해죄에 대한 배상법들(17~23절)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둘로 처 죽이라 하시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나 상해를 입힌 그대로 갚으라(16,20절)고 하신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형벌이지만 언약 공동체의 평안과 질서를 생각하면 형벌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막에 켜져 있는 등잔의 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일깨워주고 인도하는 등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요 9:5)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요 1:4). 빛은 영적으로 복음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과 또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 구실을 하여야 함을 암시해 줍니다(마 5:14~16).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 두기 위해서는 순결한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야 하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기에는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빛이 되는 삶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레 24:2)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구원하는 등대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에게도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땅을 6년간은 파종하고 제 7년째는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1~7절). 사회공동체에 대해서는 일곱 안식년, 곧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여 사람과 땅 모두에게 자유와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희년이 되면 사고 팔았던 토지와 가옥들을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종들에게도 토지와 가옥과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제도를 방지하여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 충분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는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희년)를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4:19).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기쁨과 소망을 가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레 25:2)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② 매순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사순절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매순간 예수님을 배반하는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특히 성금요일에 있었던 특별집회와 성찬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2천 년 전 피범벅이셨던 예수님을 느끼며 보혈로 충만한 삶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단자들이 말하는 일시적인 소생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부활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예약된 죄인들에게 전해진 최고의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 3:15).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따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평화를 허락하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이행하여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나는 …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13절). 반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싫어하는 백성에게는 질병과 기근을 주시고, 교만을 꺾으시며, 땀 흘린 수고가 헛되어 열매를 얻지 못하고 들짐승들을 보내어 가축을 멸한다고 하십니다. 땅은 황무하게 되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14~39절). 그러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형벌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40~46절).

성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길갈로 나간 우리들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눅 15:11~32)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뿐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레 26:3~4)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죄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가게 하소서. ②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는 제2차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마무리 됩니다.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일단 약속한 것은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약속을 어기면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며 때로는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떻게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10절). 부득이 바꾸어야 할 경우 그 값의 오분의 일을 배상해야만 합니다(13절). 서원은 사람과 가축으로 할 수도 있고, 집과 토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헌신해야 합니다(고후 9:7).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이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신실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는 헌신은 자기 의와 공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만이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생명을 낳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레 27:30)

기도제목

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바쳐지는 생애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장에 나오는 것이 첫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후 2년이 지난 뒤에 했고, 두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실시했습니다(26장).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 된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비한 군사 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시 민족번영은 힘 있는 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군사의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막강한 군대의 규모를 재정비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수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키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 사람들(5절)입니다. 함께 설 사람은 복음전파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계수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전쟁을 겪게 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경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대장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 1:54)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산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민수기 2장 · 찬송가 550장

27

수요일

“여호와께서 ... 말씀하여 이르시되”(1절)와 같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1~21장 대부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7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선언이 빠진 11~12, 14, 16, 20~21장은 한결 같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민수기서는 세상에 붙들 것 없는 우리 삶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선언한 여호와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행위로 이어지며 신약에서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33~34절)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진실로 회개하며 죄 앞에 몸부림하고 씨름하는 애씀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민 2:34)

기도제목

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 것이라”(12절), “내 것임은 …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13절)의 선언은 레위인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구속의 사건에 근거하여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의 소유권자가 되신 것입니다(출 13:2).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해서도 “너는 내 것이라”(사 43:1)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처지였으나(롬 7:14)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행 20:28),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고 말합니다.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12절)라는 말은 타인의 역할을 대신 담당할 자란 뜻으로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대속 개념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4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레위인의 역할을 제시하시면서 모든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 곧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히 12:23)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내 것이라”는 선언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구속을 말씀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약속입니다(요 10:28~29).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롬 14:7~8).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민 3:12)

기도제목

① “너는 내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레위인들의 직무 1~20절은 고핫 자손들 중에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임무를, 21~28절은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임무를, 29~33절은 므라리 자손들 중에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임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34~49절은 레위 지파의 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3절)는 말씀에 따라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막 봉사만 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선출된 사람에게는 성막에서의 사역이 각각 분담되었으며, 모든 사역은 아론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도 주가 명하시는 대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사 52:11)라는 말씀처럼 성소에서 일하는 자는 정결해야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고핫 자손은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일할 자로서, 언약궤(증거궤, 법궤)를 지키고 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15절)라는 말씀을 어기고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궤 곁에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삼하 6:6~7).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나 유익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민 4:49)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죄를 자복하고

민수기 5장 · 찬송가 264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산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고, 레위인의 역할(임무)을 정한 후 진을 치고 있는 자의 부정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구약의 모범으로, 신약에서의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음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5~10절까지는 죄에 대한 보상에 관한 말씀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범한 죄도 여호와께 패역한 것으로 보고 '자복' 하여 피 값을 갚을 것을 명하며, 죄의 배상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를 필요로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사죄하고 변상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이하에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성막에서 가져온 거룩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만약에 그 여인이 범죄했으면 물이 몸속에 들어가 쓴 맛을 내어, 몸에 저주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17~22, 27~28절). 여기에서 우리는 부부 간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 은밀한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결케 하는 거룩한 물이 죄 있는 자에게는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쓴 물이 되듯, 성령은 죄를 숨기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잠 28:13).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민 5:4)

기도제목

① 은밀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4월 구역교재 초점

부활의 소망,
나의 기쁨



부활의 소망, 나의 기쁨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장사되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기적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실체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예고한 대로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ㄴ

4월 구역교재 개요

4월 1일 | 요한일서 2:1~2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은 영원한 은총을 가져다주실 대언자이시다

4월 8일 | 요한일서 3:1~3
신자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4월 15일 | 누가복음 19:28~44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4월 22일 | 누가복음 24:34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믿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씀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1년 4월 1일

1 과

우리의 대언자

| 초점 |

예수님은 영원한 은총을 가져다주실 대언자이시다

| 찬송 |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본문 | 요한일서2:1~2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㉞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입니다. 속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의 완전함은 구원의 확실함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신자들은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면 의로 말미암아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요한의 편지는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일 1:9 _____

요일 2:28 _____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귀음을 파괴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용서와 사귀음은 깨어집니다. 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요일 2:1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골 1:14

※ 신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의 승리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요일 2:1 /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가 있으
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 대언자는 우리
가 넘어질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
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항상 우리의 편에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언자이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히 4:15 _____

히 7:25 _____

롬 8:38~39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과 천국에서 우리의 완전한 대언자이십니다(요
14:1~3). 신자들은 이 두 세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의 대언자는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은 죄의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일 2:2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실로 주님의 속량의 희생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고후 5:17~20 / 그런즉 누구든지 _____ 새로운 피조물이
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_____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
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_____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_____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
노니 너희는 _____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로서 주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대언자로 계속 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또한 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은 세상적인 학벌, 성공 그리고 명예와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은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깨뜨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가져다주실 대언자이십니다.

딤후 2:5 _____

히 9:15 _____

| 믿음의 기도 |

1.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2.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령에 새기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2011년 4월 8일

신자의 소망

| 초점 |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 찬송 |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본문 | 요한일서 3:1~3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당장 얻게 될 가장 부요한 삶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신자의 소망이 됩니다.

벧전 3:15~17

※ 지금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요일 3:1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는 아주 심오했습니다.

※ 사도 요한이 요약한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아들로 여기고, 자신에게도 그의 어머니를 친 어머니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요 13:13~14, 17, 19:26~27). 요한의 서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진가를 알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요일 3:1~2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어부였습니다. 이 세상은 이 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 15:18~19

※ 신자들이 핍박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 받을 준비를 하고 인내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 15:26~27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요일 3:2~3

우리가 실패와 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요한 또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일 1:8~9 / 만일 우리가 _____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_____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 전쟁터에서의 삶은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든 것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을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고전 15:51~52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신자들도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시련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요 3:16

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가장 순결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 믿음의 기도 |

1. 십자가 사랑으로 매순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011년 4월 15일

3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 초점 |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충현찬양곡집 60장 종려나무

| 본문 | 누가복음 19:28~44

⁽²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
더라 ⁽²⁹⁾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
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⁴³⁾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 또 너와
밋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
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신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나라를 갔다 온 어떤 귀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누가복음 19:11~27 말씀의 비유를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귀인의 비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돕는 말씀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영광스런 입성에 관해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당함과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온 세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막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구약성경에서 예언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까지 이어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은총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요 19: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때때로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이르거나 늦지 않으십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시간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2:4

요 7:6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눅 19:30~31).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눅 19:33)라고 물었고, 이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눅 19:34)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말씀하신 그곳에 있었고, 그 주인의 반응도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계획이 성취됩니다. 그의 구원계획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추가된 계획이 아닌, 사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다

예수님은 성경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속 9:9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구약성경이 그것을 예언했을지라도 왕 중의 왕은 멋진 말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마차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 중의 왕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에 의해 태어나 강보에 싸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군중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실은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사 53:4~6

고전 15:3~4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눅 19:41~44 / 가까이 오사 _____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_____
_____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밋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_____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으로 그를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도착은 그의 원수들을 자극했고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날에 가장 위대한 교사들과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놓친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아주 특별한 초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롬 2:5 _____

벧전 4:17~19 _____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자랑스런 임재가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마 16:24 _____

히 12:2 _____

| 믿음의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2011년 4월 22일

4과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

| 초점 |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 찬송 |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 본문 | 누가복음 24: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가치하며 천국의 소망은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일시적인 병이나 마비가 되는 질환이 아닌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전 15:17~20

※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롬 4:25).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속량을 받을 기회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조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빈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엠마오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눅 24:34)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부활은 주 되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주 되심의 표현입니다.

시 16:2 _____

요 20:28 _____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눅 9:22).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진실로 그의 완전한 주 되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의심하며 과소평가했습니다(눅 9:18~19).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잘못된 인상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나 선지자 또는 로마정권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줄리어스 시저 또는 그 어떤 위인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십니다. 그의 주 되심은 죽음을 뛰어넘고 정복하십니다.

빌 2:9~11 / 이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극히 높여 _____
 _____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
 령을 _____ 모든 입으로 _____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은 생명

5월 1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요 11:25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과거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갈보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비애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습니다(사 53:3). 첫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그들은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그들은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 온 여인들은 그의 구속의 역사를 장례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 복음의 독특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고전 15:22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활은 사랑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 3:16 / _____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첫 부활절 아침, 세상은 은총의 시대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때가 얼마나 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실 오실 것입니다.

요 14:1~3 _____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유 1:21 _____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십자가가 그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여 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롬 1:4 _____

행 4:33 _____

| 믿음의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3.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UN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하여

⁽²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²⁹⁾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⁴³⁾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도둑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 또 너와 밋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28~44)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신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나라를 갔다 온 어떤 귀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눅 19:11~27). 이 의미 있는 비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돕는 말씀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영광스런 입성에 관해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당함과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온 세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막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구약성경에서 예언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까지 이어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은총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때때로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이르거나 늦지 않으십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은 철저히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요 2:4, 7:6). 오늘 본문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눅 19:30~31)라는 말씀은 자신의 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눅 19:33)라고 물었고, 이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눅 19:34)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정확하게 그곳에 있었고, 그 주인의 반응도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과 성취의 과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구원계획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추가된 계획이 아닌, 사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다

예수님은 성경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스가랴 9:9은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구약성경이 그것을 예언했을지라도 왕 중의 왕은 멋진 말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마차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 중의 왕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 강보에 싸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군중은 예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실은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4~6). 성경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 이니라 하시니라”(눅 19:41~44).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으로 그를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도착은 그의 원수들을 자극했고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날에 가장 위대한 교사들과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놓친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아주 특별한 초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스런 임재가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4월

Copyright©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정발인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